

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보라색 사탕을 닮은 열매, 정도리 새비나무

내가 사는 아파트 화단에는 우리나라 자생식물들이 식재되어 있다. 함박꽃나무, 보리나수나무, 마가목 그리고 좁쌀나물. 이중 좁쌀나물의 작고 양중맞은 보라색 열매는 가을 동안 주민들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내 주변에서 좁쌀나물의 별명은 짝궁 나무다. 열매가 어릴적 문방구에서 사 먹었던 '짝궁'이란 이름의 사탕을 닮았기에 붙은 별명이다. 나는 매년 이맘때 숲과 정원에 열린 좁쌀나물의 보라색 열매 사진을 찍어 올 해도 짝궁이 열렸다면 친구들에게 좁쌀나물 소식을 전한다.

좁쌀나물은 도시의 정원과 화단뿐만 아니라 숲에 분포하는 자생식물이다. 좁쌀나물과 비슷한 종으로 작살나무도 있다. 작살나무도 좁쌀나물처럼 가을이면 보라색 열매를 매다는데, 좁쌀나물의 열매가 좀 더 크고 탐스러워 도시에는 좁쌀나물이 주로 식재된다. 보니 우리에게는 작살나무보다는 좁쌀나물이 더 친근하다. 그래서 우리는 '짝궁' 사탕을 닮은 그 열매를 보면 모두 좁쌀나물이라 식별하곤 한다. 그러나 남부 지역에는 좁쌀나물과 작살나무 외에도 새비나무가 있다. 이름도 고운 이 나무의 열매 또한 좁쌀나물과 같은 보라색이다.

2주 전 사망수수를 그려야 할 일이 생겨 완도의 한 사망수수 농장을 찾았다. 그림 그릴 사망수수를 다 관찰하고 서울로 돌아가려 하니 농장 주인분이 내게 10분 거리에 있는 해안선인 구강동에 가보라 추천했다.

완도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는 말과 함께. 나는 문득 언제 다시 완도에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울로 올라가는 KTX편 시간을 뒤로 미루고 구계등으로 향했다.

구계등에는 300년 전 만들어진 방풍림, 정도리 자연관찰로가 있다. 방풍림은 바람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한 숲이다. 이곳은 난대림과 온대림이 어우러진 숲으로, 다도해해상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장도리에는 새비나무가 산다.

둥근 몽돌이 밭에 치이는 해변을 지나 상록수림을 걷다 보니 수고 1미터가 안 되어 보이는 새비나무가 보였다. 나무에는 은빛을 머금은 보라색 열매가 맺혀 있었다. 열매의 색을 보아하니 열매가 열린지 시간이 꽤 지난 듯 보였다. 보라색 열매가 열리고 시간이 흘러 빛에 비하면 열매 색이 은빛으로 변하는 시기가 온다.

언뜻 보면 이들은 작살나무, 좁쌀나물과 별다른 점이 없어 보이지만 잎을 자세히 보면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들 앞에는 털이 밀생한다. 좁쌀나물은 가지에 주로 털이 있을 뿐이지만 새비나무는 잎의 앞면과 뒷면 모두 털이 만져질 정도로 많다. 새비나무 혁명의 종소명 몰리스(mollis) 또한 부드러운 털이 있는 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식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식물을 잘못 식별하고, 식물의 틀린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자주 본다. 이런 현상은 식물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일

부의 식물만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나타난다. 아는 식물 이름이 하나도 없으면 눈앞의 식물이 어떤 이름이라 도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더 세밀히 들여다보아 정답에 가까운 답변을 얻지만, 일부의 식물만 아는 사람은 눈 앞의 식물과 자신이 아는 비슷한 식물을 쉽게 같은 종으로 묶어 버리고, 내가 모르는 영역으로의 가능성을 접어둔 채 경험과 감각에 갇혀 오동정한다.

실상 연구자들은 눈앞의 식물을 식별할 때 어느 속, 어느 종류인지만 말할 뿐 종을 쉽게 단정 짓지 않는다. 동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것(데이터) 만으로 는 확실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아는 것이란 생각을 한다. 그리고 자연은 언제나 더 인간의 오만에 일침을 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가을이면 SNS 사진으로도 자주 만나는 짝궁 열매 역시 모두 좁쌀나물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보라색 열매 식물은 새비나무, 좁쌀나물, 작살나무, 미국작살나무 등이 있고, 작살나무라고 해서 무조건 열매가 보라색인 것도 아니다. 흰 열매의 흰작살나무도 있다.

새비나무의 열매는 겨울 동안 새의 먹이가 되고, 그렇게 멀리 또 많이 번식하여 새로운 개체로 성장할 것이다. 새의 먹이가 되는 나무, 새보리나무 그리고 새비나무로의 이름 변천사를 떠올리며 숲을 빠져나왔다.

〈식물 세밀화가〉

의료칼럼

구강암,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김효준
조선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전임의

육을 이식해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등 수술 후에도 일상생활 회복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아무리 치아 임플란트 기술이 발전해도 충치를 예방하고 자기 치아를 관리해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듯, 구강암 또한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구강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강암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 구강암의 유발인자로는 흡연, 과도한 음주, 자외선, HPV 등의 바이러스, 깨진 치아 또는 잘 맞지 않는 의치 등의 자극이 있다.

특히 흡연과 과도한 음주를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흡연 기간 및 빈도가 늘어날 수록 발병률도 높아지며,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할 경우 그 위험이 더 증가한다. 자외선은 구강암, 특히 입술에 발생하는 암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햇빛이 강한 시간대의 야외활동을 삼가고 자외선 차단제, 모자나 양산 등을 이용해 자외선을 피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은 비단 구강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요 암들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잘 알려진 인간 유두종바이러스 HPV 또한 구강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때문에 남자도 HPV 바이러스를 예방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호주 등에서는 남성의 HPV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 깨진 치아, 잘 맞지 않는 의치의 자극 등도 구강 내 연조직의 잦은 손상을 유발하고, 이러한 잦은 연조직의 손상이 구강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치과 내원 및 관리가 필요하다.

구강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경우 구강암의 치료 결과도 상당히 좋아진다. 5년 생존율은 조기에 발견된 구강암의 경우 약 80% 이상을 보이지만, 진행된 구강암의 경우에는 40% 이하로 급격히 감소한다

이러한 조기 발견을 위해서 자기 구강을 주기적으로 스스로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매일 아침 이를 닦을 때, 거울을 이용해 입 안을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구강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입안에서 만져지는 혹 같은 덩어리, 3주가 지나도 낫지 않은 입안의 궤양, 입안의 하얀색, 붉은색, 검은색 등의 병소, 갑자기 흔들리는 치아, 쉽게 출혈이 생기는 병소, 목에서 혹이 만져지는 경우 등이다.

구강암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는 것이다. 구강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암의 종류는 편평상피세포암이다. 이는 구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잇몸과 점막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치과에서 치아와 잇몸의 건강을 진단하면서 구강암의 조기 병소도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조기 병소는 통증이 없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치과의사에 의해 발견되기도 하며, 치과 치료를 위해 촬영한 방사선 사진상에서 발견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치과 내원 및 검진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구강암은 생활 습관의 변화와 조기 발견을 통해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구강암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기고

국화와 함께 가을을



전고필
영암문화관광재단 대표

에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모인다.

화순 고인돌공원, 함평 국화축제장, 신안 퍼플섬, 목포 항구축제장 등에서 즐기는 비경을 지른다. 잔치마당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으로 서글픈 일이 된다. 다행스럽게 호환하며 보다 무섭다는 비도 내리지 않고 조석으로는 서늘하지만 낮이면 뜨거워진 열기가 사람들을 도시에서 교외로 코드기는 전조같은 역할을 해 준다. 이것이 차를 부지런히 운전하는 이유인지 싶어진다.

뜨락에서는 농민들의 분주한 일손이 부지깡이까지 울려서키며 고군분투 중인데 축제장에서는 한가하고 느릿한 이들이 가을의 풍성함을 온몸으로 즐기고 있다. 옛날 같았으면 모두 농번기 박학을 갖고 한 묶 거들었을 법한 여린 손자 손녀들은 나와 무관한 일 인양 길 길다고 땀박질하며 공원을 질주한다. 그래도 모든 것이 풍요로운 가을이니 너그워진다.

가을의 태양이 쉬엄쉬엄 흘러가는 월출산 아래에는 기찬랜드가 있다. 여름이면 내내 천원 암반수를 받은 물놀이장으로 6만여 명이 다녀갔던 곳이다. 여름시즌 그냥 물놀이만 하면 이곳에 버스킹이 펼쳐졌었다. 음악공연과 연주, 마술 등이 주를 이루며 입장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흥취가 대단했었다.

일상의 결에서 문화가 숨쉬도록 하는것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어려운 것은 정책적 결정이나 예산이 어려운 것이지 판을 벌이면 사람들은 그것을 즐길 줄 알고 내것으로 체화하는데 익숙하다. 여지껏 이래왔으니 늘 이래야 한다는 통념을 깨는 것이 문화이고 기획이

다. 이런 경험속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그럼 내년에는 이곳 계곡을 예술이 숨쉬는 계곡으로 가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한다. 바라던 바이다.

기찬랜드가 갑자기 분주해진다. 가을 국화꽃 축제를 준비하는 것이다. 10월말에 개막을 하니 9월말부터 준비에 들어갔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봄부터 시작해 여름 피야벌에서도 비가림 하우스에서 국화를 무럭무럭 키우고 있었다. 그런 국화들이 각종의 조형물에 얹혀 자리를 잡는 시간이 한달동안이다.

그리고 지난 10월 28일 월출산국화축제(11월 12일까지)의 점등식이 있었다. 여름내 수영했던 공간에는 달빛폭포라는 콘서트로 전등이 전광석화처럼 빛나고, 영암의 특산인 멜론이나 무화과, 매력한우 등의 조형물이 캐릭터같이 전시되고, 월출산의 구름다리와 천황봉에 걸린 달이 사진 스팟을 만들어 주고, 느릿하게 월출산 언저리에서 한 생애를 살아가는 국립공원 월출산의 깃대종 ‘남생이’가 여기저기 고개를 기웃거리는 진풍경도 연출되어 있다.

물결 1억 송이라고 한다. 구름다리에 이어 터널의 경관이 있고, 용치계곡을 따라가는 산책로가 유유자적하고, 가야금산조기념관에는 국화로 목부작과 석부작을 한 진기한 작품들이 연신 셔터 세례를 받는다.

뜨겁던 여름을 이겨내고 이렇게 선선한 가을에 꽃을 피워내서 찬서리가 몸서리치도록 흠뻑 뿌리는 겨울까지 이어주는 국화의 매력에 흠뻑 빠져 볼 일이다. 여러분은 망점을 나주 세지 지나 영암 신복에 오면 뚝대처럼 솟아있는 월출산 기찬랜드에 두시면 된다.

社說

공공의료, 경제 논리로만 따져선 안된다

광주시 공공의료 체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기대했던 광주의료원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공공의료를 경제성 논리로만 보는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그제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광주의료원 설립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경제성 등에서는 3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 건립을 추진해 왔다. 광주시는 경제성 평가에 대비해 350개로 계획한 병상을 300개로 줄이고 광주의료기금(담배소비세 5%)을 조성하겠다는 재정확보방안을 제시했지만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그제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광주의료원 설립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경제성 등에서는 3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 건립을 추진해 왔다. 광주시는 경제성 평가에 대비해 350개로 계획한 병상을 300개로 줄이고 광주의료기금(담배소비세 5%)을 조성하겠다는 재정확보방안을 제시했지만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주시의 공공의료 공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메르스 사태 이후 설립이 확정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이 5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당초 2021년 개원에서 2026년 말로 늦춰졌는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사업 지연과 예산 집행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집행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하는 등 판지를 걸고 있다. 여기에 이미 설립돼 치매·요양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시립 제1·제2 요양·정신병원마저 만성적자로 위탁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의 공공의료 전반이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경제성 논리로만 따지기 때문이다. 공공의료는 민간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 의료 인프라다. 수익성 보다는 주민 건강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사회 안전망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광주의료원 설립을 긍정적으로 재검토 하고, 광주시도 운영난을 겪고 있는 시립병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원산지 표시' 배달음식도 예외일 순 없어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먹거리 안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업주조차도 제도를 모르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최근 광주·나주·목포 등지의 배달 앱을 통해 30여 곳의 음식점에서 초밥, 치킨, 제육볶음 등 배달음식을 시켜 확인한 결과 단 두 곳의 음식점만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했다. 현행법상 배달음식이라도 총 24개 품목의 경우 반드시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 또는 영수증, 전단, 스티커 등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배달음식 업소 중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체도 증가하고 있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배달음식 업소 중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30곳

에 달했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20년에는 배달음식 업소 37곳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고 2021년에는 57곳이 적발됐으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배달음식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업주들은 배달 앱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위반 사항에 대한 적발에 앞서 제도 자체를 모르는 업주에게 설명하고 계도할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어지면 서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만큼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다.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업주도 많다고 하니 관계기관도 처벌 위주의 행정보다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여행지에서 만난 서점 '오래된 미래'는 기억에 남아 있는 공간이다. 서점이 자리한 곳은 충남 당진시 면천면. 서점을 찾아가는 동안 줄곧 먼 단위 작은 마을의 동네 책방은 어떤 분위기일까 궁금했다. 무엇보다 주인이 많지 않을 이 작은 동네에 서점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기했다.

면천읍성을 품은 동네에 들어서 책방 앞에 섰을 때 작은 탄성이 나왔다. 세월의 흐름을 그대로 담고 있는 서점은 60년 된 2층 양옥집을 개조한 곳으로 예전에 자전거 수리점이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서점에서 주인장이 선별한 책을 만날 수 있었고, 마치

개성있는 작은 서점들이 인기를 모으면서 "이런 곳에도 서점이?"라는 생각이 들 만한 곳에서도 책방을 만날 수 있지만 서점이 단 한 곳도 없는 군(郡)도 있어 대조적이다. 2022년 지역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서점 소멸 지역'은 6곳, 서점이 하나 뿐인 '서점 소멸 위험 지역'은 30여 곳으로 모두 인구 이탈이 심한 지역이었다.

최근 서점 불모지였던 신안군에 '1004 책방'이 문을 열었다. 군은 책방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자를 찾았다. 도서관도 겸하는 책방에는 장난감이 비치된 공동육어나눔터와 카페가 있고 북콘서트도 열릴 예정이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거나, 인터넷으로 책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어떤 책이 나왔나 궁금해하며 서점 산책을 하는 즐거움은 어디에도 비할 데가 없다. 책방이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을 넘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책에 관심있는 이들이라면 모두 나만의 동네 서점 사용법을 한번쯤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다.

/김미은 여른매체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